

아시아 서사의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

– 김남일·방현석의 『백 개의 아시아』(도서출판 아시아, 2014)

장경남*

1.

아랍과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고대로부터 널리 읽혀 온 고전 우화집 『투티 나메』는 서양의 『천일야화』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의 서술 구조를 취하고 있다. 『투티 나메』의 주인공은 페르시아 황제 코바트와 앵무새이다. 지혜로운 조언자로 황제를 보좌하던 앵무새는 황제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는다. 앵무새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처형을 하룻밤 동안 유예받는다. 이렇게 해서 앵무새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담고, 그 이야기 속에 또 다시 이야기를 담으면서 한없이 이어진다.

『백개의 아시아』의 구성은 『투티 나메』의 구성을 차용한 듯하다. 아시아 지역에 전승되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백 개를 골라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실제로는 <라마야나>, <샤 나메>, <마하바라타>를 세 편으로 나누어 이야기했으므로 94개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시작해 중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넣고 마지막에는 ‘이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야기의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야기의 연결은 구성법에서 뿐만 아니라 이야기 전개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도의 대서사사 <마하바라타>에서 활을 잘쓰는 신궁 아르주나는 크룩세트라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한 인물이다.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잇는 이야기가 ‘신궁이야기’이다. 중국의 예와 몽골의 에르히 메르겐이 그 주인공이다. 에르히 메르겐은 명궁으로 자만심이 대단했다. 일곱 개의 태양을 모두 활로 맞추어 떨어뜨리겠다고 장담했지만 실패했다. 실패하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하나씩 맞추어갔다. 여섯 개를 맞추고 나머지 한 개를 맞추려고 화살의 시위를 당겼지만, 순간 제비가 시야를 가렸고 화살은 제비 꼬리를 맞추고 만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땅굴 속으로 들어가 타르바간이라는 동물이 되었다. 타르바간의 발가락이 네 개인 것은 엄지손가락 하나를 잘랐기 때문이다. 타르바간이라는 동물의 기원, 제비꼬리가 갈라진 이유에 대한, 그리고 해와 달이 생긴 이유를 말해주는 기원설화이다. 이렇게 기원설화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기원설화’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형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어진 이야기가 무려 백 개다. 공간으로는 아시아를 중단하고 횡단한다. 횡단은 일본에서 터키까지이며, 종단은 몽골에서 티모르까지이다. 아시아 지역 총 30 여개 국가의 이야기가 선택되었다.

‘이야기의 시작’과 ‘이야기의 끝’, 네 번의 ‘이어지는 이야기’, 두 번씩 나누어 이야기 한 ‘영웅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를 제외하면 모두 열여덟 개의 주제를 다룬다. 그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서사시로 손꼽힐 만한 ‘마하바라타’, ‘샤 나메’, ‘라마야나’, ‘길가메시’가 각각 한 주제씩을 차지한다.

그밖에도 ‘트릭스터 이야기’, ‘현자 이야기’, ‘책 속의 책’, ‘영웅 이야기’, ‘사랑 이야기’, ‘변신과 괴물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신궁 이야기’, ‘기원 설화’, ‘거인과 천하장사 이야기’, ‘무대에서 만나는 이야기’, ‘창세·건국 이야기’, ‘동물우화’, ‘새로운 영웅 이야기’ 등 열네 개의 주제로 이야기가 나뉜다. 이 주제들 속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라마다 다른 버전으로 재창조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엿보이기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가 하면 이야기마다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해당 이야기를 소재로 한 현대의 시, 소설, 희곡 등을 소개하는가 하면 저자들의 생각을 담아내기도 한다. 공간적 이동은 물론 시간적 이동도 자유롭다. 저자들이 소설가가 아니었다면, 소설적 상상력이 바탕을 이루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도록 기발한 구성법을 취한 것이다.

2.

인도의 2대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이란의 <샤 나메>, 이라크의 <길가메시>는 실로 상상을 초월한 대 서사시이다.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샤 나메>에 대해서는 각각 3회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마하바라타>는 인도 고대 문명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담았다고 평가하였다. 작품의 내용은 바라타족의 친족 간 전쟁에 관한 것이 주요 줄기를 이루는데, 형제간인 판두 왕의 다섯 명 왕자 판다바들과 드리타라슈트라 왕의 백 명의 왕자 카우라바들이 벌이는 전쟁 이야기를 비중있게 소개하였다. 이 이야기의 명장면은 아무래도 드리타라슈트라의 아들

인 두르요다나와 판두 왕의 아들 유리스트라간의 대회전이다. 격전을 눈 앞에 두고 유리스트라의 동생 아르주나가 절망하는 장면은 인간적인 고뇌가 가감없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소개하였다. 이 부분을 독립시킨 것이 『바가바드기타』인데, 마하트마 간디와 함석헌이 이를 읽고 감명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에 이르면, 이 작품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간디는 “『바가바드기타』가 사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 즉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서술한다고 믿었다”고 이야기한다. 두 집단의 전쟁인 크룩세트라 전투 장면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유적지인 ‘앙코르와트’의 서쪽 회랑 남쪽 날개에 무려 오십미터 길이의 판 하나에 정교하게 부조되어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무지를 반성하게끔 한다. 이 조각의 대상이 <마하바라타>였다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인 셈이다.

<라마야나>는 기원전 3세기경 시인 발미키가 펴낸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힌두교의 3대 주신인 비슈누의 아바타(化身) 라마 왕자의 모험가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제목은 ‘라마의 일대기’라는 뜻이다. 이 작품은 장구한 세월 인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가 예술 창작의 원천이었고,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쳤다. 미술(벽화 조각, 부조), 음악, 연극(가면극, 그림자극, 인형극), 춤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음은 그 반증이다. 활발한 전승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퍼져 나간 사실이다. 불교도와 자이나교도 무슬림 사이에서 각기 다른 판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인도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 널리 퍼져 나간 점도 설명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티베트, 중국, 일본, 필리핀 등등. 여기에 우리의 <수로신화>에 등장하는 수로의 짝 허황옥이 아유타국에서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그 아유타가 바로 라마의 고향 아요디아라는 사실은 막연한 짐작을 확신으로 바꾸는 설명이다.

<라마야나>의 동남아시아의 국가별 판본에 대해서는 4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즉 캄보디아의 <레암케르>, 인도네시아의 <카카원 라마야나>, 방글라데시의 <라마야나 간>와 <찬드라 라마야나>, 스리랑카의 <라마야나>이다. 이 책에서는 각국에서 전승된 <라마야나>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짚고 있다. “<라마야나>는 이미 오래 전에 동남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어 그곳의 생활과 종교,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판본으로 모습을 갖추어왔다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판 <찬드라 라마야나>는 여주인공 시타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점을 놓치지 않고 “<찬드라바티 라마야나>에서는 발미키 판본에서 당연히 전투나 남성적 영웅성, 그리하여 공적인 영역에 맞춰지던 강조점이 사적인 영역으로 옮겨 간다. 그리하여 그것은 여성들의 삶에 투영된, 배신당한 한 여인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로서 재해석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마하바라타>와 마찬가지로 <라마야나>의 명장면 랑카의 전투 장면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의 서쪽 회랑 북쪽 방면에는 랑카의 전투를 새긴 길이 약 오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부조가 있다.”고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샤나메>라는 작품의 존재는 이 책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폭도 협소함을 일깨우기에 족하다. ‘샤나메’(sha name)는 ‘왕들의 책’이라는 뜻으로, 서기 1010년 이란 시인 피르다우시가 35년간의 집필 끝에 페르시아어 대구 형식으로 완성한 약 6만여 행의 방대한 서사시라고 소개하고 있다. 창세에서 7세기 이슬람의 페르시아 정복 때까지 대이란 제국의 신화와

역사는 물론, 고대 신앙으로서 조로아스터교를 말해준다. 이야기의 방대함에 맞추어 그 내용도 영웅, 사랑, 전쟁, 모험, 환상 이야기 등 매우 다양하다. 가히 “한마디로 페르시아 문화의 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도 과언은 아니다.

<샤나메>가 교과서는 물론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서부터 외국인용까지 풍성하게 활용되는 텍스트로 각광받고 있다는 설명을 읽으면서 정작 아시아의 일원인 한국인에게만 낯선 것이 부끄럽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전승되는 <라마야나>와 좋은 짝을 이루는 것이 서남아시아 전역에 전승된 <샤 나메>인데, 이들 작품에 대한 무지는, 한국의 설화를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필자에게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백개의 아시아』의 저자는 이와 같은 대서사시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니다. 비록 좁은 전승범위를 갖고 있을지라도 빼 놓지 않고 있다. 티모르의 지형을 악어의 형상으로 설명한 이야기가 그 예이다. 더군다나 방글라데시의 산탈족 창조신화에 이르면, 이 책의 숨은 의도에 저절로 감탄을 하게 된다. 강력한 신인 지우조차 혼자서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악어·거북이·계·가재·지렁이 등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한 뒤에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창조의 임무를 전담한다는 남성적 영웅시로 가득 찬 기존의 대다수 창조신화에 도전장을 내민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를 접하면서도 창조주가 단숨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형식의 창조신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한 방 먹이는 통쾌함마저 든다.

3.

『백개의 아시아』의 공동 저자인 김남일은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연구자였다면 이런 책이 나오지 못했을 거다.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로 역할을 하는 책은 우리처럼 능력은 없지만 겁 없이 돌아다니는 소설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연구자들에게 수백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독자들에게 소개하자고 제안했다면, 아마도 이야기를 모아 놓고 유형을 나누고 다시 합치고 어떤 유형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 등등을 고민하다가 말았을 것 같다. 더군다나 아시아 이야기의 다양성에 놀라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다. 저자들의 이야기를 엮는 솜씨로 인해 아시의 이야기를 소개한 이 책이 세상에, 아니 대한민국에 나올 수 있었다고 본다.

연구자의 못된 습성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책의 구성이나 배열 또는 설명에 대해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다. 아시아의 이야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배열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하자면, 방글라데시의 산탈족 창조신화는 ‘창조·전국신화’에서 이야기하면서 아시아 창조신화의 다양성을 설명했다면 하는 생각이 든다.

<게세르>를 영웅이야기로 범주화한 것도 조금은 불만이다. <장가르>, <마나스>와 함께 중앙아시아 3대 서사시로 꼽힌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물론 폭넓은 전승범위를 갖는다고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서사시를 비중 있게 소개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말이다. 이야기의 우열을 가리지 않으려는 이 책의 장점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하지만.

또 하나, ‘무대에서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시아 인형극의 전통과 전승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이야기와 함께 우

리의 <꼭두각시놀음>도 함께 곁들였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한국문학 연구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한계일 것이다.

‘변신과 괴물이야기’에서는 정말 다양한 변신이야기를 볼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의 소개에 이어지는 설명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변신 이야기의 유래나 세계적 분포, 의미 설명과 아울러 카프카의 <변신>에 대한 해석이 장황하다는 느낌이다. 더구나 베텔 하임과 들뢰즈의 이론을 곁들인 설명은 옥의 티라고 본다.

부탄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작고 가난한 나라 중 하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한다. 그 바탕에 부탄의 민담이 자리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해석했다. 그리고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 자신들의 고유한 이야기 전통과 유산을 통해 세계사에 확실히 기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말 “이야기는 힘이 세다.”